

“송가인처럼 힘내서 코로나 극복하시게라”

가수 송가인 기아챔피언스필드서 시구

코로나로 2년여만에 시구...보해와 '희망 던지다' 캠페인도 본인도 8월 확진 판정 뒤 완치 "11월 신곡 들고 기운 내세요"

“송가인이여라-!”

송가인(35·본명 조은심)의 낭랑한 목소리가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를 가득 채우자, 우레 같은 환호성이 관중석에서 터져나왔다.

송가인은 26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SSG 경기 시구자로 마운드에 올랐다. <사진> 수일 전부터 짙은 땀 흘리며 공을 던져보고, 유튜브를 뒤지며 올바른 자세를 공부했다는 송가인. KIA 정해영에게 받은 속성 코치를 떠올리며 침착하게 공을 던지자, 공은 매끄러운 곡선을 그리며 미트에 안착했다.

그는 “무대 올라가기 전, 노래하기 전처럼 너무 떨렸다. 처음 해 본 시구라 설레기도 하고, 잘 해내야겠다는 생각이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고 돌아봤다.

송가인은 2년여 전부터 시구 계획을 세웠지만, 코로나 여파로 일정이 계속 미뤄졌다. 시구 일정이 확정되자 SNS를 통해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

던” 시구를 하게 됐다고 알리기도 했다.

“전부터 야구에 대한 관심이 있었거든요. 2014년 쯤에는 문구점에서 초등학교용 야구 글러브를 사서 공 던지는 연습을 하기도 했어요.(웃음) 그 덕에 오늘 시구도 잘한 것 같아요.”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를 방문한 것도, 시구를 해 본 것도 처음이라는 송가인. 진도가 고향인 만큼 기아타이거즈에 대한 애착도 남다르다고 전했다.

송가인은 이날 시구와 더불어 보해양조와 함께 ‘송가인 작은 희망을 던지다 with 잎새주’ 캠페인을 진행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응원하는 캠페인으로, 코로나19로 지친 팬들의 사연을 듣고 영상으로 응원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자영업자 분들의 사연이 많았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제약이 많아져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힘내라는 응원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짧게나마 제 노래를 불러드렸습니다.”

송가인에게 이번 캠페인은 어느 누구보다 마음에 와닿았다. 송가인 본인도 지난 8월 2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약 2주동안 치료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후 지난 7일 SNS를 통해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 소식을 전했지만, 다소 가름해진 모습으로 팬들의 애간장을 태우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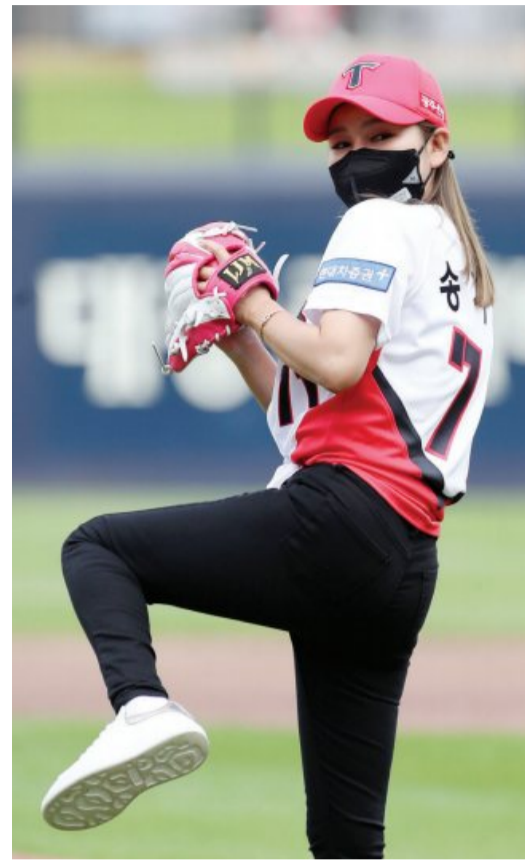
“다행히 아무 이상 없이 완쾌됐고, 오히려 격리 중 쉬는 시간도 갖게 됐다고 생각해요. 물론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며칠 정도는 되게 많이 아팠죠. 확진자들의 심정이 이해되고, 또 ‘다들 이렇게 아팠구나’ 걱정도 되는 날이었어요.”

송가인은 “오늘은 모두 함께 힘냈으면 좋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작은 공에 담아 던졌다”며 “오는 11월께에는 신곡을 발표할 계획이다. 많은 분들이 노래 들으시고, 노래 통해서 희망도 얻으시고 기운 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팬들을 위한 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이날 챔피언스필드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송가인 팬 200명이 열린 응원을 펼치기도 했다.

송가인은 “항상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면서도 “먼 곳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는데, 시구 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버려 아쉽다. 다음에 또 시구 기회가 온다면 언제든지 불러주시라”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이 시대 마지막 ‘유랑 광대’ 별이 되다

강준섭 무형문화재 진도다시래기 보유자 별세

평생 전국을 떠돌며 공연한 ‘이 시대 마지막 유랑 광대’ 강준섭 국가무형문화재 진도다시래기 보유자(사진)가 지난 24일 오후 7시께 별세했다. 향년 88세.

진도에서 출생한 고인은 1933년 무속인 집안에서 4남 1녀 중 넷째 아들로 출생해 자연스럽게 예인(藝人)의 길로 들어섰다.

국가무형유산원이 발간한 구술 자서전에 따르면 고인의 유택대 어른은 대대로 음악 활동을 했다. 고인은 판소리 명창 신치선에게 소리를 처음

배웠으며 이후 여성 창극단에 입단해 전국을 유랑하며 공연했다. 군 복무 시기를 제외하면 1970년대까지 유랑극단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고인은 1975년 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행한 진도다시래기 복원 활동에 참여했고, 1979년에는 국립극장에서 진도다시래기 공연을 했다. 전문 예인들이 전승한 진도다시래기는 상례 풍속과 민속극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는다.

진도다시래기가 1985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자 고인은 고 조담환과 함께 기량을 인정받아 이 종목 보유자(인간문화재)가 됐다. 또한 심정천, 춘화정, 장화홍련전 등 고전 판소리부터 신파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무대에 섰다. 특히 영화 ‘왕의 남자’에서 장생으로 등장한 배우성이 맹인 연기의 표본으로 삼은 것으로도 알려져 주목을 받았다.

유족으로는 유랑극단에서 함께 활동한 부인 김애선 진도다시래기 명예 보유자와 진도다시래기 전승 교육사인 아들 민수 씨, 딸 계순·계옥 씨가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남대병원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전개



전남대병원(병원장 안영근)이 최근 아동학대 신고 및 지원체계를 구축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전남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 주관으로 열린 이번 캠페인은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조치 및 신고가 이뤄지도록 지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전남대병원 제공>

신병철 조선대병원 교수, 복지부장관 표창

조선대병원 신병철 신장내과 교수가 최근 ‘제4회 생명나눔주간’을 맞아 장기이식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와 기증 문화 확산 및 이식 활성화 등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신 교수는 2011년 조선대병원 신장내과 교수로 부임한 후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위해 광주·전남 지역의 타병원 인공신장실 등을 방문해 홍보활동을 하는 한편, 원내에서도 신경외과와 신경과 등 뇌사자 발굴이 가능한 과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스포츠마케팅 권위자 전호문 목포대 교수 별세

한국스포츠산업마케팅 분야의 권위자로 광주·전남은 물론 국내외 체육 발전에 앞장서온 전호문 목포대학교 체육학과 교수가 지난 22일 별세했다. 향년 57세.

전 교수는 서석고 시절 세계소년검도대회 개인전 3위를 차지한 엘리트 검도선수 출신으로 목포대 체육학과를 거쳐 미국 미시시피주립대에서 스포츠산업마케팅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지난 1993년 목포대 체육학과 교수로 임용된 뒤 2021년 현재까지 29년간 후학 양성과 지역스포츠산업 발전에 수많은 업적을 남겼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1 FAX 062-222-4938, 222-4918

알림

- ▲조동수(전 광주일보 주필)·서경숙씨 아들 찬호군, 김성경·남희씨 딸 혜인양=10월 3일(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87길22 도심공향터미널(삼성동 159-6) 소노펠리체 다이아몬드홀02-2222-7401-5.
- ▲정용빈·전지원씨 아들 재호군, 이홍재(광주일보 주필)·김숙희씨 딸 보미양=10월 4일(월) 오후 2시 30분 서울 강남구 청담동 드레스가든 청담 02-512-1000.

알림

-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프로그램 신청=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알선, 취업교통비 지원 등 취업지원 및 긴급원호, 숙식제공,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 ▲청소년전화062-1388=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학대 신고=언제든 노인학대로 힘들어 하고 계신 분들, 노인학대를 목격하시거나 알게 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1577-1389.
-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 문제(알

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주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 무료지원, 장례지도사 무료지원 062-369-4009.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모집

▲산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모집=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남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후문 80미터 010-4622-7838.

▲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 모집=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능력개발원 061-320-7024.

▲시니어플래너지도사(자격반) 모집=시·군·구·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010-5522-9700.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24	달뜨기	22:00
해질	18:22	달짐	12:04

일교차 큰 가을

동해상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겠다.

광주	흐림	17/25	보성	흐림	16/25
목포	흐림	19/26	순천	흐림	18/27
여수	흐림	20/24	영광	흐림	17/26
나주	흐림	17/26	진도	흐림	18/26
완도	흐림	19/25	전주	흐림	17/25
구례	흐림	16/27	군산	흐림	17/24
강진	흐림	18/26	남원	흐림	16/25
해남	흐림	17/26	홍산도	흐림	20/25
장성	흐림	17/26			

◇전국 날씨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파고 (m)	파고 (m)
서해 남부	앞바다	0.5~1.0	0.5~1.0
	면바다(북)	1.0~2.0	1.0~2.0
	면바다(남)	1.0~2.0	1.0~2.0
남해 서부	앞바다	0.5~1.5	0.5~1.0
	면바다(서)	1.0~2.5	1.0~2.5
	면바다(동)	1.5~2.5	1.0~2.0

◇물때

		간조	만조
목포		10:36	05:24
		23:09	18:10
여수		05:45	12:24
		18:16	--:--

◇생활지수

식중독	자외선	미세먼지
경고	보통	좋음

◇주간 날씨

28(화)	29(수)	30(목)
19/27	21/26	19/28
10/1(금)	2(토)	3(일)
18/28	18/27	17/26

부음

▲고순자씨 별세, 김준재(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트레이너 워킹그룹)씨 모친상=발인 27일(월) 광주시 서구 쌍촌동 한국병원 장례식장 1분향실 062-380-3444.